# 화두일념 이뤘나 철저히 돌아보라

### 조계종 종정 진제 스님

〈중략〉

이번 결제의 대중은 각자가 삼동구순(三冬九旬)의 결제기간 동안 얼마나 화두일념(話頭一念)을 이루었는지 돌아보고 또 돌아보아야 할 것이라. 습관처럼 좌복(坐服)에 앉아서 번뇌망상으로 시간을 보내거나, 혼침(昏沈)에 빠져 있거나, 게으른 마음으로 방일(放逸)한다면 천불(千佛) 만조사(萬祖師)가 출현해서 깨달을 수 없음이라.

하루에도 천 번 만 번 화두를 챙기고 의심하고, 또 챙기고 의심하여만 진의심(眞疑心)이 발동 걸리게 됨이니 노력하고 또 노력해야 할 것이라. 화두(話頭)가 있는 이는 각자의 화두를 참구하되, 화두가 없는 이는 '부모에게 나기 전에 어떤 것이 참 나인가?' 하고 이 화두를 챙기고 의심할지어다.

석가모니 부처님 이후로 가장 위대한 도인(道人)이라면 마조 도일(馬祖道一) 선사를 꼽을 수 있는데, 달마 대사의 스승이신 반야다라(般若多羅)존자께서 "네 밑으로 7대(代)의 아손(兒孫)에 이르러서 한 망아지가 출현하여 천하 사람을 밟아 죽일 것이다."라고 예언하셨다.

실제 마조 선사의 탁월한 안목(眼目)은 감히 어느 누구도 능가할 사람이 없다 하겠다. 위대한 마조 선사의 지도하에 84인의 도인 제자가 나왔는데, 그 가운데 백장스님과 남전스님 등 너 댓 분의 기량이 아주 출중(出衆)하였다.

백장(百丈) 스님이 마조 선사의 시자(侍者)일 때, 하루는 마조 선사를 모시고 들판을 지나가게 되었다.

큰 저수지에서 들오리들이 놀다가 인기척을 듣고 날아가는 것을 보고, 마조 선사께서 백장 스님에게 물으셨다.

"저기 날아가는 것이 무엇인고?"

"들 오리 떼입니다."

"어디로 날아가는고?"

"산 너머로 날아가 버렸습니다."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마조 선사께서는 백장 스님의 코를 잡고 세게 비틀어 버리셨다.

"아얏!"

백장 스님이 아파서 소리를 지르니 마조 선사께서 말씀하시기를, "어찌 일찍이 날아갔으리오." 하였다. 날아가지 않았다는 말이다.

백장 스님은 절로 돌아와서 모든 것을 잊고 일념삼매(一念三昧)에 들었다.

'오리들이 어디로 날아갔느냐고 물으셔서 산 너머로 날아갔다고 말씀드렸는데, 마조 선사께서는 왜 코를 비트셨을까?'

이 한 의심(疑心)에 빠져 있다가 일주일이 지나서 그 의심이 홀연히 해결되었다. 마조 선사께서 코를 비트신 뜻을 알게 된 것이다. 그래서 곧 조실방(祖室房)으로 달려가서, "스님, 어제까지는 코가 아프더니 오늘은 전혀 아프지 않습니다."라고 말씀드렸다.

이 말에 마조 선사께서 백장 선사의 눈이 열렸음을 아시고 운집종(雲集鍾)을 치게 하시니, 몇 백 명 되는 대중들이 모두 법당에 모였다. 대중들이 운집하고 마조 선사께서 법상에 좌정(坐定)해 계시는데, 백장 스님이 맨 마지막에 들어오더니 절하는 돗자리를 걷어서 어깨에 메고 법당을 나가 버렸다.

이에 마조 선사께서는 한 말씀도 설(說)하시지 않고 즉시 법상에서 내려와 조실방으로 돌아가셨다. 이렇게 척척 통해야 되는 법이다. 마음 땅의 지혜가 열리면 이렇게 일거일동(一擧一動)의 낙처를 서로 아는 것이다.



세월이 흐른 후, 마조 선사께서 법상(法床)에 앉아 계시던 차제(此際)에 백장 스님이 들어오니, 선사께서 법상 모서리에 걸어 놓은 불자(拂子)를 들어 보이셨다. 그러자 백장 스님이 여쭙기를, "이를 바로 씁니까, 이를 여의고 씁니까?"하니, 마조 선사께서 그 불자를 원래 걸려 있던 자리에다 도로 걸어 두셨다. 한동안 백장 스님이 아무 말 없이 가만히 있으니 마조 선사께서 물으셨다.

"그대는 장차 대중을 위해서 어떻게 법을 설하려는고?"

그러자 이번에는 백장 스님이 걸려 있던 불자를 들어 보이니, 마조 선사께서 다시 물으셨다.

"이를 바로 씀인가, 여의고 씀인가?"

백장 스님이 아무 말 없이 불자를 도로 제자리에 걸자, 마조 선사께서 "억!" 하고 벽력같은 '일할(一喝)' 을 하셨다. 이 '할' 에 백장 스님이 혼비백산(魂飛魄散)하여 사흘 동안 귀가 먹었다가 깨어나서 마조 선사께서 '할' 하신 뜻을 깨달았다.

그 법이 황벽 스님으로 이어지고, 황벽 스님에게서 임제 스님으로 이어져서 임제종을 이루고, 중국의 당나라 천하를 풍미(風靡)하고 고려시대 때에 우리나라의 태고 스님에게 전해져서 지금은 오직 한국에서만 오롯이 이어오고 있음이라.

마조선사의 또 다른 출중한 제자인 남전(南泉) 선사가 회상(會上)을 여니 각처에서 스님들과 신도들이 모여들었다. 하루는 한 노승(老僧)이 10세 미만의 동자승(童子僧)을 데리고 남전 선사를 친견하러 왔다. 노스님이 먼저 남전 선사를 친견하고 청(請)을 드리기를, '제가 데려온 아이가 아주 영특한데, 저로서는 저 아이를 훌륭한 인재로 키울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니 스님께서 크신 법력(法力)으로 잘 지도해 주십시오.' 하고는 물러 나와서 동자승을 조실방으로 들여보냈다.

동자승이 인사를 올리니, 남전 선사께서는 누워 계시던 채로 인사를 받으며 물으셨다.

"어디서 왔느냐?"

"서상원(瑞像院)에서 왔습니다."

"서상원에서 왔을진대, 상서로운 상(像)을 보았느냐?"

"상서로운 상은 보지 못했지만, 누워 계시는 부처님은 뵈었습니다."

남전 선사께서 누워 계시니 하는 말이다.

남전 선사께서 이 말에 놀라, 그제서야 일어나 앉으시며 다시 물으셨다.

"네가 주인이 있는 사미(沙彌)냐, 주인이 없는 사미냐?"

"주인이 있습니다."

"너의 주인이 누구인고?"

"스님, 정월이 대단히 추우니 스님께서는 귀하신 법체(法體) 유의하시옵소서."

그대로 아이 도인이 한 분 오신 것이다.

남전 선사께서 기특하게 여겨, 원주를 불러 이르셨다.

"이 아이를 깨끗한 방에 잘 모셔라."

부처님의 이 견성법(見性法)은 한 번 확철(廓撤)히 깨달을 것 같으면, 몸을 바꾸어 와도 결코 매(昧)하지 않고, 항상 밝아 그대로 생이지지(生而知之)이다.

이 사미승이 바로 '조주고불(趙州古佛)' 이라는 조주 스님인데, 이렇듯 도(道)를 깨달은 바 없이 10세 미만인데도 다 알았던 것이다. 조주 스님은 여기에서 남전(南泉) 선사의 제자가 되어 다년간 모시면서 부처님의 진안목(眞眼目)을 갖추어 남전 선사의 법(法)을 이었다. 그 후 조주 선사는 80세가 되도록 행각을 다닌 후에 회상(會上)을 여니, 한 수좌(首座)가 안거 석 달 동안 공부를 잘해오다가 해제일(解制日)에 이르러 하직 인사를 드리니, 조주 선사께서 이르셨다.

"부처 있는 곳에서도 머물지 말고 부처 없는 곳에서도 급히 달아나서 삼천리 밖에서 사람을 만나거든 그릇 들어 말하지 말라."

이에 그 수좌가, "스님, 그러한즉 가지 않겠습니다."하니, 조주 선사께서는 "버들잎을 따고, 버들잎을 딴다.[摘楊花摘楊花]"라고 말씀하셨다.

"그러한즉 가지 않겠습니다."하는데 어째서 "버들잎을 따고, 버들잎을 딴다."고 하는가?

이러한 법문은 알기가 매우 어려운 것이라. 만일 누구라도 각고정진(刻苦精進)하여 이 법문의 뜻을 알아낸다면, 백천삼매(百千三昧)와 무량묘의(無量妙意)를 한꺼번에 다 알아서 하늘과 땅에 홀로 걸음하리라.

시회대중(時會大衆)은 '적양화적양화(摘楊花摘楊花)' 를 알겠는가?

적양화 적양화(摘楊花 摘楊花)여! 천리오추추부득(千里烏騅追不得)이라.

버들잎을 따고 버들잎을 땀이여! 하루에 천리를 달리는 오추마라도 따라잡기 어렵느니라.

# 일면불 월면불이니라

### 해인총림 해인사 방장 원각 스님

마조도일 선사가 몸이 불편하다고 하니 원주스님이 와서 물었습니다.

"화상이시여. 요즈음 법체가 어떠하십니까?"

이에 선사께서대답 했습니다.

"일면불(日面佛) 월면불(月面佛)이니라."

옛 어른들은 병을 앓으면서도 사람 키우는 불사를 게을리 하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마조선사는 병으로 인하여 몸과 마음을 쉬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본분의 일을 망각하지 않고 공부 인을 제접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 '일면불 월면불' 문답은 알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동서의 납승(衲僧)과 남북의 선객들이 머리를 맞대고 갖가지 분별 심으로 여러 가지 대꾸를 하였으나 하나같이 어지럽기 그지없습니다.



마조선사의 물음에 대하여 설두중현 선사가 말했습니다.

"일면불 월면불이여! 삼황오제역시하물(三皇五帝亦是何物)고 일면불 월면불이라고 하니 삼황오제가 이 무슨 물건인고?"

송나라 신종(神宗)황제는 '일면불 월면불' 이 아니라 '삼황오제가 이 무슨 물건인고.' 라는 말에 걸려 "나라를 풍자했다"고 여겼습니다. 알고 보면 '오제와 삼황' 은 다스려짐과 어지러움이 모두 없어진 향상(向上)의 경지인 것입니다. 삼황과 오제에 대한 최고의 찬탄인 것입니다. 안목이 없는 것은 그 원주스님이나 신종임금이나 별로 다를 바가 없습니다. 어쨌거나 안목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천하 사람들의 시비를 끊을만한 대답을 내놓아야 할 것입니다.

진각혜심 국사의 제자인 각운(覺雲)선사는 "월면보광불(月面普光佛)은 세상에 머무시는 수명이 하루 낮 하루 밤이요, 일면무비존불(日面無比尊佛)은 세상에 머무시는 수명이 일만 · 일천 겁이다. 마조선사는 지난날에는 오래토록 세상에 머물려고 했으므로 일면불과 같고, 지금 돌아갈 길이 너무도 긴박하므로 월면불과 같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라고 대중에게 다시 물었던 것입니다.

어쨌거나 이 질문에도 휘둘리지 말고 내 살림살이를 단박에 내놓을 수 있어야 결제를 제대로 한 것입니다. 그래야 비로소 해제를 제대로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그 옛날 마조회상(馬祖會上)이 오늘의 총림이 될 것이요 오늘의 총림이 그 옛날 마조회상이 될 것입니다. 〈중략〉

금오탁파유리각(金烏啄破琉璃殼)하고, 옥토애개벽해문(玉兎挨開碧海門)이로다.

금 까마귀는 유리구슬을 쪼아 부수고, 옥토끼는 푸른 바다의 문을 밀쳐 여는구나.

# 正眼 활짝 여니 한 물건도 없다

### 쌍계총림 쌍계사 방장 고산 스님

寤寐一如除妄想(오매일여제망상)하고 夜半諦聽木鷄聲(야반제청목계성)이로다.

言下頓亡生死關(언하돈망생사관)하니 天眞面目完然現(천진면목완연현)이로다

잠 깨고 잠자는 것이 한결 같음에 망상을 제하고 한밤중에 나무 닭 우는 소리를 완연히 들었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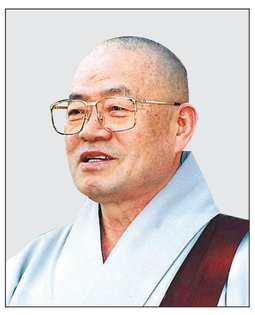
언하에 몰록 생사관을 잊으니 천진한 면목이 완연히 나타났도다.

豁開正眼無一物(활개정안무일물)이요 十方法界自在行(시방법계자재행)이로다.

塵塵刹刹本來空(진진찰찰본래공)이요 放下一念萬事休(방하일념만사휴)로다.

정안을 활짝 여니 한 물건도 없고 시방법계에 자유자재로 행하도다.

티끌마다 세계마다 본래 공함이요 한 생각 놓아버리니 만사가 쉬어지는 도다.



粉骨碎身破無明(분골쇄신파무명)하니 飜天覆地入眞空(번천복지입진공)이로다.

撒手懸崖進一步(살수현애진일보)하니 金烏夜半徹天飛(금오야반철천비)로다.

뼈가 가루되고 몸이 부셔지도록 정진해서 무명을 파하니 하늘을 엎고 땅을 뒤집음에 진공에 듦이로다.

천길 현애벽상에서 손을 놓고 한걸음 내어디디니 금까마귀가 한밤중에 하늘을 사무쳐 나는도다.

歸本鄕人(귀본향인)은 如雲水竹林行(여운수죽림행)이로다.

본 고향에 돌아간 사람은 구름과 물이 대밭을 지나감과 같으리라.

# 자장매 붉게 피었네

### 영축총림 통도사 방장 성파 스님

素食生計長時富(소식생계장시부)요 伴雲行裝萬事閒(반운행장만사한)이라.

千里古園今日返(천리고원금일반)하니 鷲山靈界闢禪關(취산령계벽선관)이로다.

산나물 먹고 사는 살림 언제나 넉넉하고 구름 벗 삼아 살아가니 늘 한가롭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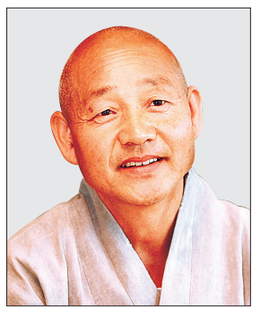
천 리 옛고향 오늘에 돌아왔으니 영축산 신령스런 경치 선관을 열어주네.

총림대중이 결계를 하고 삼동안거를 원만하게 성만하게 되었습니다.

素食(소식)과 藥石(약석)으로 살아가니 번다함이 없어지고 六和로 화합하니 솔바람 물소리가 무진법문이 되었습니다.

영축산 선풍에 총림대중이 모두 옛고향에 돌아오게 되었으니 어찌 기쁘지 않겠습니까? 모두가 일을 마친 한가한 도인이라 할 만합니다.

오늘 해제를 하고 산문을 나서는 대중이여!



만나는 사람마다 영축산 소식을 묻거든 자장매는 올해도 때맞추어 붉게 피어서 무진법문을 설고 있다고 전해 주었으면 합니다. 지난해의 향기보다 더욱 진하고 붉다고!

寂寂澗琴雲裡秦(적적간금운리진)요 依依松瑟月中聽(의의송슬월중청)이라.

此行定見妙吉祥(차행정견묘길상)하리니 說法壇前海岳傾(설법단전해악경)하리라.

고요한 시냇물 거문고는 구름 속에 울리고 아련한 솔비파 소리는 달빛 가운데 들리네.

이번 떠나가면 반드시 문수를 친견하리니 설법단에 산과 바다가 예배하리.